

① Prologue — 법무사 시험

왜 법무사 시험이었나?

- 수험을 시작하던 시기의 나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 전업 수험생입니다.

우선 저는 2024년 10월,

법무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마음먹기 전,

단 한번도 법과 관련한 일을 한적이 없고

법 공부조차 해본적이 없는 생 초짜임을 밝힙니다.

(공인중개사 등등 시험 공부 경험도 없습니다.)

중학생때부터 미술을 시작해 대학교 전공도 미술이었고,

8년간 운동강사, 모델, 인플루언서 생활을 해왔기에

제 인생에서 수험공부의 마지막은 고3시절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사 공부라는 무지막지한 전문직 시험에 무대뽀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 왜 법무사 시험을 선택했는가

제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불행하다는걸 절실히 겪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아서 택했던 직업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직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

심지어 이것저것 할것을 알아보다가 지게차 자격증을 따두었을 정도입니다. ㅎㅎ

저는 지게차 자격증이 법무사 시험 도전의 초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것에 도전한다는게 너무 재미있었고,

지게차 자격증의 이론시험을 공부하면서 스터디카페를 가게되었는데

이때 제가 잊고지냈던 고3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은 대충 공부하는 지게차 자격증 이론시험도

저는 고득점을 받고싶어했고,

결국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승부욕과 욕심이 많아서 대충 할바에야

아예 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

다만 하려고 마음먹은것은 제가 그 분야에서 최고여야하고 ,

누군가에게 뒤쳐지거나 지는것을 스스로 용납할수 없는... 특이한 성격입니다.

지게차 이론 공부를 하며 내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었다는게 떠올라서

제가 지금 공부로 딸수있는 자격증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ㅎㅎ

정년이 없는것은 역시 전문직 이겠지요.

그리고 뽀대도 나구요.. 😊

그래서 대한민국 8대 전문직종 노무사, 법무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수포자여서 수학과 관련된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노무사와 법무사가 고민되어 토익도 미리 봐두었습니다 ㅎㅎ.

인생 첫 토익을 한달 공부하니 850점이 나왔습니다. (토익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전문직 자체에 도전을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어? 토익 점수가 나오니 법무사 공부 하다가 너무어려우면 노무사 공부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됨.. ㅎㅎ)

화끈하게 박문각 올패스 2년을 끝었습니다.. ㅎㅎ

300만원 📁 내돈내산 으루요.

공부 시작 전의 막연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

저는 사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어렸을때 별명이 책벌레 였을정도로 책 읽는것을 아주 좋아했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스스로 활자중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또한 고3때 1년간 지독하게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데

스탑워치로 체크한 하루 순공 20시간이 아직도 기억날정도로 제 자신에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무사 공부 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달랐습니다.

우선 , 제 몸이 19살이 아니었습니다 ㅎㅎ...

수험기간 내내 목 어깨, 허리가 매일 너무 아파 침치료,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몸 어딘가 한군데가 안아픈날이 하루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건강이 이미 안좋아진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다보니 체력도 많이 딸렸습니다.

이에 대한 팁도 후반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사 시험 정말 극악의 '양' , 극악의 '난이도' 라는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양에 지쳐 눈물이 나는 시험입니다.

★ 다만 이것또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시험은 커트라인이 매우! 낮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올해 합격컷이 높았지만 여전히 60점대 초반입니다.

공무원시험, 수능시험은 문제 한두개 가지고 등급과 대학, 합격의 당락이 갈리지만, 법무사 시험은 한 문제당 2점, 즉 한 과목에서 10개 이상을 틀려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 공부 방법을 공부하라

저같은 법공부라고는 해본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단기간에 1차 법무사시험을 고득점 합격한것은 제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성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

스스로 단점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할정도로 게으름을 많이 피우고, 마지막까지 미루는 습관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인지 저는 잔머리가 잘굴러갑니다 ㅎㅎ

‘공부’가 아닌 ‘시험’은

무조건 쉽고 빠르면서 고효율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남들보다 노력은 덜하면서 성과는 더 난다는점,

저는 그점을 잘 파고들었기에

비교적 일찍 1차를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공부법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유튜브에 공부법이 범람하는 시대이니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살펴보고,

특히 법무사 합격수기는 빠짐없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힘들었을때마다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보고 또보고 하면서 해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② 시험 과목별 공부 방법 정리

***민법**

교수 : 이혁준

수강 강의 : 기본강의 + 집중강의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력은 원탑이시고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평을

내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박문각 올패스를 끊었지만 모든 강의는 기본 강의 이후 듣지 않았고,

기본강의 후 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기본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은 후 복습을 객관식 문제집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은 2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집중 강의를 들었는데 이 집중 강의가 개념을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꿀팁 : 아이패드로 들으시는 분들 , 교수님의 판서를 그대로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정말 집중해서 들은뒤 필기를 캡쳐하시고,

복습하면서 선생님의 필기를 따라해보시는걸 권합니다.

이혁준 교수님은 따로 판서집도 구매할수 있기 때문에 판서집도 구매하여서

집중강의와 2차시험 강의에 활용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교수 : 김기찬

수강 강의 : 기본강의 + 집중강의

부동산 등기법과 같은 절차법이 제일 어려웠지만,

절차법은 그냥 어떠한 기계의 '사용설명서' 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논리등 당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웠습니다.

이런 단순 암기 에는 '안키(Anki)' 어플을 사용하여

강아지 산책할때마다 시간을 정하여 걸어다니면서 외웠습니다.

김기찬 교수님은 딱딱하고 지루한 부동산 등기법을 쉽게 재밌게 설명해주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게 강의에 그대로 녹아납니다.

또한 교수님의 두문자는 정말 최강이에요ㅋㅋ

한번 들으면 잊을수 없는 두문자를 잘만들어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과목 두문자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뽀) ㅎㅎ]

그만큼 정말 두문자를 잘만드셔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또한 강의 게시판에 질문을 했을때도 답변을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감동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헌법**

교수 : 오상훈

수강 강의: 기본 강의 + 집중 강의

오상훈 교수님 수업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 들을 때는 헌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막상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는 제 머릿속에서 뭔가 개념이 정리가 안되어있었고 지문들이 이해가 잘 안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판쯤에 집중 강의를 한번 더 들었는데

이게 정말 굉장한 도움이 되어서 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낼수 있었습니다.

집중강의때 주신 요약본과 최신 판례들이 시험에 도움될만한 핵심을 잘 응축한 자료였어요.

***상법**

교수 : 하영태

수강 강의 : 기본강의

객관식 문제집 : 심우 출판사 10개년 기출문제집

하영태 교수님은 오픈채팅톡방으로 질문을 그때그때 대답해주시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상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어음수표때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ㅎㅎ..

그래서 상법도 안키 어플을 활용해서

틈나는때마다 그냥 외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상업등기법을 하면서 상법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부 후반부에는 상법이 제일 자신있었고 재밌기도 해서 나중에 법무사가 된다면

상업등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ㅎㅎ

처음에 여러분을 애먹인 과목이 나중에 효자과목이 될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교수 : 김지후

수강 강의 : 기본강의

객관식 교재 : 김지후 선생님 교재

저를 제일 많이 울린 과목입니다.. ㅎㅎ 진짜 말그대로 많이 울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공부할때는 잠깐 쉬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ㅜㅜ...

그만큼 너무너무너무 어려웠고, 법의 기본이 없는 저에게 경매에 관한 용어도

너무생소했고

진짜 법을 개떡같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지후 선생님의 강의 초반, 교수님이 밉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ㅎ

너무 어렵고 선생님 말이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해요ㅠㅠ)

민사집행법 공부를 하면서 남편에게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법무사 시험

포기하고싶다고 ㅎㅎ

"그래. 포기해도 괜찮아"하고 말해줄줄 알았던 남편이 이상일 폭 쉬고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들면 그만뒤도 괜찮다고 해주었었는데,

이 순간은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포기하면 저에게 실망하게 될것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말에 겁이나서 포기를 못했습니다 ㅎㅎㅎ

(제 법무사 수험생활의 1등 공신은 남편님입니다💕)

김지후 선생님은 민사집행법 교재에 교안을 주시는데, 그 교안도 처음엔 사실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정도 공부를 그냥 묵묵히 하다보니까 ,

교안이 외워지고, 그 교안덕분에 전반적인 흐름을 기억하는 구조로

공부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또한 김지후 교수님의 교재+객관식 문제집 정말 최고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에 해설이 너무나 잘 되어있어서 내가 이문제를 왜틀렸는지 이해

하기가 쉬웠습니다.

게다가 질문을 올렸을때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울컥할 정도였습니다.

법 초짜이신 분들 민사집행법이 정말 어렵고 힘드실텐데 조금만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공탁법 : 김경태**

수강 강의 : 기본강의

김경태 교수님 강의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김경태 강사님도 공탁법에 대해 두문자 등으로 정말 잊기 힘들게 만들어주시고,

수업시간에 공부방법 조언을 주시기도 하여서 강의듣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만 객관식 교재를 O,X 문제집으로 샀는데 불편했지만 다시 구매하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풀었습니다.

O,X문제집보다는 꼭 객관식 5지선다 문제집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업등기법 : 김경중

수강 강의 : 기본강의

가끔 상업등기법 포기할까 하는 질문이 보이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 시간대비 점수가 굉장히 잘나오고, 상법 실력까지 올라갑니다.

김경중 교수님의 얇은 요약정리본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아주 꿀효자 과목입니다.

김경중 교수님의 강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ㅎㅎ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상법 지식을 상업등기법을 배우면서 목차별로 정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③ 1차 시험 관련 핵심 꿀팁

✨첫번째 : 학원 모의고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모든 학원 모의고사 전회차를 전부 구매하여 풀었고,

6월 이후에는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꼭 실제 시험장의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고
omr마킹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에서 내는 법무사와 겹치는 과목의 시험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최신 판례, 최신 기출, 교수님들이 택하신 중요쟁점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푸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정도인지를 냉정하게 알수있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 과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을때도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에

제 고득점의 원인은 모의고사 문제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 체력 관리가 공부 만큼 중요하다.

제가 제일 실패한 부분이지만 😓

여러분들은 잘 하셨으면 해서 주의사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함에 운동보다는 책을 보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잘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틀린 전략이었습니다.

1차 시험 한달 전 소화불량 문제로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었고,

시험 당일날까지 배아프면 어쩌지 하면서 마음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밥먹고 바로 앉아서 공부하지 마시고,

꼭 20분정도가량 산책, 혹은 하루 한시간은 운동하셔주시길 권합니다.

10대때는 워낙 체력이 받쳐주다보니까,

공부가 이렇게 체력소모가 많고

체력이 없으면 공부도 하기 힘들다는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체력이 무너지면 정신력이 무너지고

정신력이 무너지니 공부고 뭐고 그냥 누워있는것밖에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체력관리를 잘 하지 못한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 세번째 : 하루 공부시간 강박을 버리자.

저는 감사하게도 전업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되어서 하루에 10시간 가량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열품타로 공부시간을 측정하였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으른데 완벽주의자입니다.. ㅋㅋㅋ

무슨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저와 비슷하신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저는 오늘 하루 10시간을 못채울것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공부 중반부터 '아...오늘은 망했다.. 그냥 오늘은 쉬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9시간이 넘어서는 정말 꾸역꾸역 억지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중반부터는 열품타 어플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오늘의 공부량을 정해두고 목표로 하여 그 공부량을 끝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대략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는 쉬는시간 외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중 하루, 이틀정도는 꼭 쉬는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도 하루 5시간 정도는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동안 하고싶었던걸 했습니다.

시험 초반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려고 했지만 절대 안된다는걸 깨닫고 그냥 많이
잤습니다 ㅎㅎ

하루 8-9시간 정도는 잔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고도 또 졸리면 그냥 낮잠도 잤습니다.

쉬는날에는 10시간 이상 잔적도 많구요 ㅎㅎ

어릴때야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루이틀 하면

다음날 입병부터 시작해서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겠더라구요.. 진짜

저질체력이었습니다.. 😞

🌟네번째 : 휴식시간을 꼭 갖기!

자기전에 야구 하이лай트를 거의 다 챙겨봤고,

유튜브도 자주 봤고 ㅎㅎ... 드라마도 틈틈히 봤습니다.

다만 저는 1년간 가족행사도 굉장히 자제하고

가족 외 다른 친구들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도 삭제하였습니다.

주변 지인,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법무사 공부를 하고싶지 않아질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법무사 공부 한다고 했을때 주변사람들도 정말 의아해 했고,
회계사 수험생활 경험이 있는 아버지도 하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사서 이고생을 하고있지?

다들 이뤄놓은게 많은데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있는거지?

라는 수험생에게 가장 무서운 생각인 공부의 시작에 대한 회의감,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데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과 하루 이틀 놀면 또 놀고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는날은 온전히 그냥 집에서 쉬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곁에서 그냥 기다려줍니다 ㅎㅎ

④ 1차 시험의 후기

전 초시였기 때문에 시험 몇달 전부터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법무사 시험은 2시간 내내 보기 때문에 화장실 도 걱정이 되어서

시험시간표와 동일하게 시간맞춰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초반에는 스터디 카페를 갔고 나중엔 그냥 집에서 풀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아서 현장모의고사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수도권 분들은 꼭

현장모의고사를 한번이라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뭔지 하나하나 생각하게되고,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식사는 무얼 해야하는지 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전 준비를 열심히 했고, 시험장에 챙겨가야 할것들도 빠짐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험 당일엔 긴장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ㅎㅎ

1. 나의 2차 (생동차) 준비 여정과 마인드셋

법무사 시험은 1차가 8월 말에 끝나면

바로 두 달 뒤에 2차가 있기 때문에,

생동차를 노린다면

처음부터 1차·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찐찐찐 노베이스ㅠㅠ

법을 태어나서 처음 공부해보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생동차는 '나랑 상관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제 계획에 없던 생동차를

왜 도전하게 됐냐면요,

1. 생동차 합격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어? 혹시 나도?' 하는 희망이 조금 생겼다.ㅎㅎ

2.1차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

6월에 본 첫 모의고사가 평균 80점.

1차는 평균 70점대만 되어도

충분히 합격 안정권이라

'굳이 1차에 다 쏟을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3.이 공부를 1년을 더해..? 너무 싫어...😞

솔직히 이게 가장 컸어요...ㅎㅎ

그래서 6월부터 민소 기본강의,

7월에는 민법·부등법 기본강의,

8월에는 1-2순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식으로

1차와 겹치는 과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 썼듯이

1차 시험 직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8월 중순 이후에는

2차 병행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시 1차 집중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1차 떨어지면 생동차라는 것도 없으니까요 ㅠㅠ

2. 공부 루틴과 멘탈 변화

9~10월에 제대로 달리기 위해

8월에는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현실은... ㅋㅋㅋ

왜 9월이 되어도 달리지를 못하니...!!!! ㅠㅠㅋㅋ

여전히 잠도 9시간 이상은 자야했고,

매일매일 피로누적에 , 목 어깨 통증을 안고

바사삭 부서진 멘탈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꾸역꾸역 그냥 했습니다.

2차시험 한달전인 10월 초 중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ㅌㅌ

소리내어 영영 우는날도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을 2개월 안에 머리속에 쑤셔넣는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니 많이 지쳤습니다.

계획대로 공부량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아.. 나는 왜 독하지 못할까,

왜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보니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서

리프레쉬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너무 불안하면 오히려 잠시 쉬거나

산책을 나가 기계적으로 안키 어플을 돌리면서

핵심문구들을 외웠고,

특히 !! 챗지피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나 공부하기 싫어ㅜㅜ 시험이 코앞인데 왜 공부하기 싫은걸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ㅎㅎ.

그럴때마다 현실을 자각시켜주고

감정을 다독여주는 말을 많이 해주어서 이겨낼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그래도 거의 하루 10시간 이상을 채웠습니다.

3. 과목별 공부전략

민법 / 민사소송법

1) 공부법 : 기본강의 + 모의고사 자료 (이혁준 교수님)

우선 민법, 민사소송법 모두 예비강의 외엔

강의를 듣지 않았고,

시간이 아주 촉박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내주신 모의고사만을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차 ~3차 모의고사만 달달 외우기에도 벅찼으므로 ,

기본서를 찬찬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ㅠㅠ.

특히 민법이 기본기가 약하다는 생각에 많이 괴로웠어서

후회가 있다면 1차 시험 민법 공부시

2차 시험 민법공부를 병행하는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민사 서류

1) 공부법 : 이천교 기본강의 + 모의고사 자료 공부

민사 서류는 개인적으로 공부할때 너무 재미있었던 과목입니다.

내가 법무사가 된다면

소장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가 되고싶다는 마음을 먹게 해준 과목입니다.

민법 지식뿐아니라 여러 법과목의 지식을 아우르는 과목입니다.

✔ 형법

1) 공부법 : 집중강의 + 모의고사 자료 공부 (이재영 교수님)

형사법 자체를 처음 접하는데도

시간이 촉박해,

예비 강의가 아니라 집중 강의를 들었습니다.

총론은 정말 이해가 안갔지만,

저는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2회독때로 이해를 미루거나,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여

'대충'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 안되는 부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ㅋㅋㅋㅋ

💡 이해 안된다 = 어려운 부분이다 = 시간을 쏟는다

=1주일 뒤면 까먹는다

의 반복이 법학이라는것을 알아버렸기에..

한번 깊게 파는거 보다는,

여러번 보는게 더 낫더라구요.

✅ 형사소송법

1) 공부법 : 집중강의 + 모의고사 자료 공부 (김영환 교수님)

1차 시험에서 절 제일 많이 올린게 민사집행법 이라면, 2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솔직히 왜 법무사 시험에 형사소송법을 넣는지

아직도 이해 안가는 1인...!

진짜 눈물로 공부했습니다.. ㅠㅠ

다만 김영환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 재밌고 알참니다.

✔ 부동산법 / 부동산서류

1) 공부법 : 집중강의 + 모의고사 자료 (김기찬 교수님)

부동산법이 그나마 1차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제일 친숙했으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법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ㅠㅠ

중요한 조문은 안키로 조문숫자를 외워버렸습니다.

4. 저만의 2차 작성 방법,

고득점의 원인 파악해보기

개인적인 의견이니 제가 무조건 맞다는것은 아닙니다!

1.방대한 분량.

저는 우선 50점 배점 기준으로 한장,

즉 네 쪽을 모두 채웠습니다.

민법은 2장 꺾, 형법은 한장 꺾, 형소법도 한장 꺾, 민소, 부등은 2장 조금 남기고

채웠습니다.

핵심문구만 간결하게 써도 합격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두시간동안 무조건 모든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미친듯이 썼습니다

ㅎㅎ

+ 글씨체는 걱정 안하셔도될거 같습니다.

이틀날 손이 너무 아파 모든 글씨를 거의 다 날려서 썼는데 아예 못알아보는게
아닌이상 영향이 미치지 않는듯 합니다.

변시 시험 채점위원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걸 봤는데

'채점자는 수험생들의 글씨를 읽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있다' 라고 쓴게 '없다' 라고 보인다면지

정반대되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할정도만 아니면

전부 알아보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2. 모의고사 '틀'을 외우자

저는 그냥 냅다 목차까지 외웠습니다. ㅎㅎ...

목차도 순서대로 두문자를 만들어서 외웠어요.

암기 공부법은 전 글에 자세히 써두었습니다.

최대한 교수님들의 모범답안의

목차를 외우려고 노력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저만의 목차를 만들기 보다는

그냥 외운 목차대로 잡고 써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게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있는 답을 외워버린거니까요 ㅎㅎ

교수님의 모범답안에 있는 내용 전부를 쓸수는 없었지만, **목차, 핵심문구**는 빠짐없이

써주었고

★★ 중요한것은 마지막에 '**사안의 정리**' 목차를 하나 무조건 잡아서 문제 내의

사안을 다시한번 정리해주었습니다.

(5점짜리 문제 제외)

3. 1순환 -3순환 모의고사는 달달 외우자

당연히 어렵죠....어렵지만 하셔야만 합니다..

저같이 비법대에 노베이스가 생동차 합격할수 있었던것은 정말 박문각 교수님들의
모의고사 덕이 큼니다.

뭐 사실 2개월 내에 할수 있는것도 많이 없었고
모의고사만 달달 외웠습니다.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체감상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형소법은 그냥 포기상태였는데,
김영환 교수님의 모의고사문제 덕분에
고득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부등서류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는 자기신탁 요점을 짚어서
공증 받아야한다고 써서 더 고득점이 나온것 같습니다.

합격 소감

합격발표날까지 엄청나게 불안에 떨다가

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확인한 순간... 남편과 부둥켜 안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생동차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여러분도 꼭 끝까지 포기 마시길 바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두의 노력을 응원합니다.